

“중증 환자 수도권 원정 필요없게” 지방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강화

정부 '의료 혁신전략' 발표

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전남대 등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 관심을 모은다.

의료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연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전남대 등 의사 수 늘리고
응급실 병실·인력 확보 지원
고난도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인재 선발도 확대키로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계속 강화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인력·병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

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꾀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필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勞·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올린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오후 광주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고 병·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지역 연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

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법을 개정,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 의료인 행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금 지원 확대

입소기간 4개월 이상·퇴소시 만19세 이상 충족 시 500만원

전남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10월 16일자 광주일보 6면)을 완화, 도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퇴소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

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입소 시 만 19세 이상자나 만 19세 미만으로 입소했다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최근 3년간 전남도 시설 퇴소자 61명 중 자립지원금 국비 지원 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전남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

소자 자립 지원을 위해 나선다. 입소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 복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자립하도록 돕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출중하고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희망교육재단 상임이사 교육청 전 간부 선임 논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상임이사에 올해 8월 퇴직한 교육청 고위 간부가 선임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6월 이전선 교육청 공약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을 설립했다.

공모를 통해 선임된 이사 5명 가운데 지난 8월 교육청에서 퇴직한 A씨가 포함됐고, A씨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상임이사로 뽑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

료를 내어 "교육청 실세로 군림했으며 이 교육감 당선 공신으로 알려진 퇴직 간부 상임이사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A씨가 교육청 재직 당시 주도했던 주요 인사, 예산, 정적이 논란이 된 적이 많았고, 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시민사회의 불신이 크다"고 우려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임이사는 무부수로 활동비도 받지 않는 봉사의 자리로 보면 된다. 선임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됐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순천 조계산 자락서 "심봤다" 7천만원 상당 '산삼 38뿌리'

순천 조계산에서 야생산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19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진모(63·순천시 승주읍)씨가 최근 순천 송광면 조계산에서 야생 산삼 38뿌리(사진)를 발견했다.

야생산삼은 모산(어미산삼) 뿌리가 90cm 길이에 이르고 2대와 3대를 이은 총 38뿌리다. 총 무게는 438g, 산삼뿌리의 무게는 185g이다.

진씨는 "몸에 좋다는 약초는 많이 만나봤지만 운이 좋지 않아 산삼을 접해 볼 기회가 없었다"면서도 "우연히 산에서 만난 전문 약초꾼을 통해 산삼의 싹대와 뿌리를 눈에 익히고 찾은지 2년만에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이 야생산삼의 감정가를 7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학생·시민·학부모 참여 광주교육 협치 한마당

21일 DJ센터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학생, 시민,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2023년 광주교육 협치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는 21일 10-18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추진단에 따르면 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The 협치, The 광주교육!'을 주제로 한 체험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학부모·마을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협치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광주경신여고 '카시오페아' 응원단과 동일미래과학고 '베아트리스'의 K-POP

댄스공연이 펼쳐진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후환경 퀴즈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시공간인 '그림실터'에서는 문산마을교육공동체의 마을길 드로잉 기획전과 '인생네트워크' 포토존이 무료로 운영된다. 공연마당인 '우리가 직접 한다' (우·직·한) 한마당에서는 학생 사례발표와 학생·학부모 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협치학교동아리, 광주시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기후위기비상행동실천단,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광주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동아리 ▲광주학부모네트워크 등의 전시·홍보·체험 48개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